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August 12, 2022 Vol. 825

이순희 목사 성령컨퍼런스, 엘에이에 성령의 단비 쏟아져

엘에이백송교회(김성식 목사)의 치유와 회복축제의 제15차 성령컨퍼런스가 지난 8월 5일 저녁에 개막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성령컨퍼런스는 첫날부터 그 열기와 은혜가 뜨거웠다.

‘복음의 성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서 이순희牧사는 첫날부터 강력한 말씀과 힘 있는 찬양으로 코로나로 위축된 성도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이순희 목사는 “누구든지 복음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서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의 속성을 바꾸는 천국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다.

이 목사는 이어 “복음의 능력으로 자아의 감옥을 부수고 자아의 죽음에 몰입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이미 복음으로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성취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아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취



엘에이백송교회에서 제15차 성령컨퍼런스를 인도하는 이순희 목사

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이순희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성도들은 얼굴을 마

주하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에 설렘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목사의 설교가 2시간 가까이 이어져도 전혀 미

동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집중했다.

최보경 집사(엘에이백송교회)는 “3년 만에 다 같이 모여서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면서 “단비와 같은 말씀에 치유와 회복이 되었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손뼉을 치고, 어깨춤을 추며 콘서트장 방불케 할 정도 찬양에 젖었다. 설교 후 기도회가 시작되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온몸을 흔들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집회 후에도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고, 따로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을 위한 안수기도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안수기도 후에는 성령체험과 우울증, 허리통증 등 오랜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간증도 나왔다.

멀리 콜로라도 덴버에서 참석한 유진 씨는 “이순희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

강력한 말씀 선포와 찬양, 영적갈증 해소 내면 치유 성회 기간 롱비치에 1만 스퀘어피트 규모 새성전 마련

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성령의 강력히 임재하는 것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마은옥 집사(엘에이 백송교회)도 “안수기도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유창한 방언이 터졌고, 무의식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까지 씻어주셨다”고 간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성령컨퍼런스의 가장 큰 결실은 성회 기간 중 엘에이백송교회가 새 성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인타운 한 빌딩에 임대로 있던 백송교회는 컨퍼런스 시작 전, 건물주로부터 30일 이내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서(30 DAYS Notice to Vacate Premise)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퇴거명령을 받은 교회는 한 달 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순희 목사는 집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새 성전을 마련하자”면서 새성전 이전 및 매입을 매입을 선포하고, 날마다 새성전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지 나흘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롱비치(Long Beach)지역에 1만 스퀘어피트(본당 250여석)규모의 교회

당을 매입하기로 했다.

더욱이 오너캐리(Owner Carry)조건으로 에스크로(매입대수)를 진행하기로 복잡한 절차 없이도 빠른 시간에 교회당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당 건물 매입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엘에이백송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러 곳에서 건축 헌금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식 목사는 “성령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복음만을 성취하려고 집중하니까 다른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셨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성전 매입을 선포하시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순희 목사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엘에이 성령컨퍼런스는 말씀과 기도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 열정도 뜨거웠다. 매일 풍성한 식사와 교제, 자발적인 봉사가 컨퍼런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엘에이 성령컨퍼런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계속해서 토론토 성령컨퍼런스도 8월 22~25일 토론토백송교회에서 열린다.

사고

미주 기독일보가 위 브릿지(We Bridge) 사역을 시작합니다.

미주 기독일보가 미주 CBS와 협력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위 브릿지(We Bridge)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미주 기독일보와 미주 CBS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자 WE 브릿지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위 브릿지 사역으로는 현재 대면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불씩 3년간 정기후원을 진행합니다.

또 두 번째 위 브릿지 사역으로 매년 혹은 정기별로 정기적으로 목회자 및 사모를 위한 컨퍼런스를 열어 작은교회 목회사역을 돕습니다. 이에 첫번째 컨퍼런스를 오는 9월 26일(월)~28일(수)까지 토론토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정기후원 및 컨퍼런스는 위 브릿지 사역에 등록된 교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모든 사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시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남가주 지역의 이웃교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본래의 사명인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남가주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이어지는 목회적 다리가 되어 선한 동역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뜻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남가주의 많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뜨거운 감동, 한반도 통일 · 세계평화 염원

2022 라크마 LA 월드디즈니 여름 콘서트 '평화' 가득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LAK-MA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이 지난 6일, LA 다운타운 월드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개최한 평화 음악회가 대성황을 이뤘다.

“우정과 하모니의 연합”(Unified in Friendship & Harmony)이란 주제로,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한 이날 연주회는 웅장한 합창과 오케스트라 예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라크마는 완성도 높은 연주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분단된 한반도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평화의 때가 도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청중들도 기립 박수로 전세계 평화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월드디즈니 콘서트 홀을 가득 메운 1400여 명의 청중들은 서곡인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부터 마지막 무대인 베토벤의 “Ode



LA 월드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2022 라크마 여름 콘서트 ©기독교일보

to Joy”가 마칠 때까지 전곡을 숨죽이며 감상했고, 가슴 벅찬 환희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특히 LA 오페라의 디바 소프라노 샤나 블레이크 힐(Shana Blake Hill)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아픔을 호소력 짙은 메시지로 전달했으며, “아리 아리랑”을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한을 담아 절제된 성숙미로 표현하며 평화에 대한 갈망과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며 한민족에게 영원한 희망을 안겨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노래한 “평화의 나라(Country of Peace)”와 “애국 행진가 (Patriotic March)”는 한민족의 기백과 희망을 유감없이 전달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출신 맥심 쿠진의 지휘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가 연주자 진행될 때는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하나 되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했다.

윤임상 음악감독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음악으로 모든 민족이 화합하는 시간이 됐고, 음악적으로도 만족할 만큼 완성도가 높은 연주회였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2010년 결성된 라크마(LAKMA)는 지난 9년 동안 매해 월드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 왔으며, 창단 이후 매해 장학사업을 펼쳐 클래식 문화 창달에 큰 기여를 해왔다. 또 타민족과 우정의 하모니를 도모하는 일로 중국, 대만, 유대, 흑인 등 타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매 해 겨울에는 음악인재들을 발굴해 장학금과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미주장신대 한인교회 1세 · 2세 목회자 동역 위한 패러다임 제시

릴리 프로젝트, 교역학 석사 영어 프로그램 진행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가 미주 한인 신학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1세와 2세대 화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교역학 석사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주 한인교회의 균형 잡힌 성장을 비롯해 1세와 2세 목회자 간 소통 및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1세와 2세 사역자 간 문화 · 언어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을 해소해 서로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발전시킬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 주목된다.

교역학 석사 영어 프로그램은 2023년 봄 학기부터 개설 될 “한어권과 영어권 맥락에

서의 목회(Ministry in KM/EM context)” 과목을 바탕으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영어권 사역자 훈련을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주장신대는 세대간 이해와 협력을 이루는 목회를 위해서는 ‘신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1세와 2세가 함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복음적 신학 교육과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회-인문학 교육 과정, 실질적인 목회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상명 총장은 “현 세대의 발전과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해 세대간의 이해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목회자 간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음 세대의 성경적 신앙 및 복음적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주장신대 릴리 프로젝트 연구모임에 참석한 한어권, 영어권 사역자들 ©기독교일보

앞서 릴리 재단은 북미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소속 270여 회원 신학교를 대상으로 교회 발전과 성장에 관한 프로젝트를 공모했으며, 미주장신대는 한인교회 성장을 위한 한어권과 영어권의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릴리 재단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미주장신대학교 교역학 석사 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문은 김루빈 처장, rbkim@ptsa.edu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미주사중복음연구소 ‘사중복음 장학사업’ 장학생 10명 첫 배출

미주사중복음연구소(소장 류종길 목사)는 ‘사중복음 장학사업’의 첫 장학생 10명을 선발하고 지난 8월 6일 연구소에서 장학금을 수여했다.

사중복음의 전문적인 연구, 확산을 위해 설립된 미주사중복음연구소는 후학 양산과 젊은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초 장학사업까지 뛰어 들었다. 성경교회의 유산인 사중복음을 신학과 목회 현장과 접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적이나 재정 형편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다른 장학재단과 달리 사중복음의 가치와 사역, 미래비전, 간증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반영했다. 특히, 이민교회의 현실을 반영해 이민 1.5세나 EM사역자들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첫 사중복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0명. 김동명 목사(Biola University Ph.D, 유니온교회)를 비롯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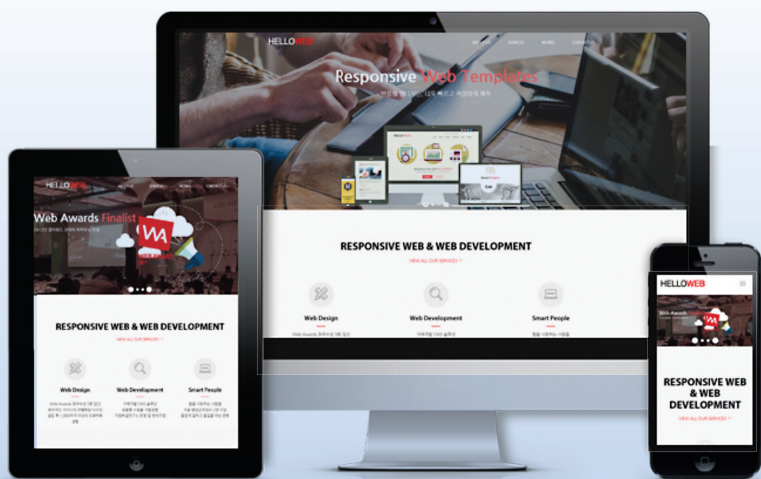
박청수 목사(Texas Christian University Ph.D, 달라스은혜교회), 허요한 목사(Knox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Ph.D), 김성한 전도사(AEU미성대 M.Div., 큰나무교회), 이규원 전도사(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유니온교회), 이은실 사모(미성대M.Div. 엘에이백송교회) 강요한(Asbury Seminary M.Div. 새생명교회), 이진(Drew Theological School M.Div. 뉴저

지 열방교회) 오제니퍼(미성대 M.Div. 인터네셔널사랑교회), 이규라 목사(미성대 Ph.D.인터네셔널사랑교회) 등으로 교단의 신학대학교와 북미 북미복음주의 기독교대학에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현장 목회사역을 병행하는 유학생, 목회자, 사모가 대부분이다.

사중복음연구소장 류종길 목사는 “장학생 중에는 EM사역자도 여럿 있고, 대를 선교사가 되겠다는 자녀도 있다. 인물이 성장하는 것이 보배로운 것”이라며 “이런 훌륭한 분을 돕게 된 것이 보람된다”고 말했다.

교회 웹사이트 제작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월드미션대, ATS 인가 철학박사 과정 개설

박사과정 디렉터에 전 연세대 종교철학과 정재현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북미 신학교육 인가기관인 ATS(북미 신학대학원협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철학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인가 받아 내년 봄학기부터 해당 학위 과정을 개설한다.

학위명은 “철학박사-실천신학 영성과 상담 집중”(PhD in Practical Theology, ‘Spirituality and Counseling’ Concentration)이며 디렉터로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한 종교철학과 정재현 교수가 선임됐다.

학위 과정은 기초 과목을 비롯해 영성분야, 상담 분야 8과목 각 4학점으로 총 32학점과 개별 지도 연구 8학점, 학위 논문 8학점 등 총 48학점으로 구성됐으며, 성서적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영성 형성의 실천적 방법에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성진 박사(우), 철학박사 학위 과정 디렉터로 선임된 정재현 교수(좌) ©기독교일보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신학적 관점에서 상담을 성찰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상담 기법을 배양하도록 했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 50%, 그리고 남은 50%는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캠퍼스 수업은

하이브리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도 참석할 수 있어 사실상 전세계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전세계 한국 선교사 45%가 현지에서 교육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교육 사업 선교를 수

행하는 선교사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하다. 또한 ATS에 소속된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학점 및 학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도 돋보인다.

임성진 총장은 “ATS 인가를 통해 철학박사 과정을 개설한 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교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오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전문성을 겸비한 정재현 교수님의 역량이 학교 발전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재현 교수는 학위 과정에 대해 “영성 형성을 위한 철학적 요구와 실천신학의 현실적 과제 및 방법을 논의하지만, 성서적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성 또한 양보하지 않겠다”며 “방대한 신학적 유산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통해 종교적 전인성을 형성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미주성결교 남가주 교역자회 가족수양회 개최



미주성결교 남가주교역자회 가족수양회 기념촬영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말씀·찬양으로 이민목회 사명 일깨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성식 목사)는 지난 8월 1~3일 네바다주 휴양도시 리노(Nevada, Reno)에 있는 너겟호텔 등에서 교역자 가족수양회를 열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Fresh Start for Recover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에는 쉽고 회복, 치유를 바라는 교역자와 가족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수양회가 열린 리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차로 9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오랜만에 모여 함께 여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로나로 후 속박을 하면서 수양회가 열린 것은 3년 만이다.

남가주교역자회장 김성식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역자들이 지치고 힘들어 들었다”면서 “이번 수양회는 가족들이 영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교역자회장 김성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전 회장 안중기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순희 목사(백송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이민목회에 지친 교역자들의 사명을 일깨웠다.

‘행복한 속사람으로 행복한 목회’란 말씀을 전한 이순희 목사는 “속사람이 강해야 이민 목회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목사는 자신이 직접 만든 여러 곡의 찬양을 선보이며 긴 여행에 지친 피로감을 씻어 주었다. 이어 참석한 교역자들은 영적 회복과 새로운 출발,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류종길 목사(전 미성대 총장)의 축도로 첫날 집회를 마쳤다.

다음날 교역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레이크 타호’에서 목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평안을 누렸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호수를 거닐고, 유람선을 타고, 물놀이도 즐기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서신인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역~사 찬란한 진리의 상~아~탑 예~숯~왔다... 선교의 요~람 서울신~학대~학교...”

지난 8월 7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서울신학대학교 교가가 울려 퍼졌다. 미국 남가주 지역의 서울신대 동문들이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모교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이 엘에이를 찾았기 때문이다. 서울신대 남가주총동문회(회장 김희창 목사)가 총장 초청 모임을 마련했다. 동문들이 속속 모였다. 신학과 54학번 노재룡 목사부터 신학과 96학번 정 목사까지 세대와 학번은 달라도 모교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남가주총동문회장 김희창 목사는 ‘교단에 요셉과 유다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셉과 유다같은 인재를 배출해 복음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뻗어가도록 동문들이 더욱 힘쓰자”고 강조했다.

황덕형 총장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미국 신학교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고 또 동문들을 만나서 서울신학대학교를 알리고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황 총장은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문들의 후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은 신학대학 중 유일하게 대학평가에 통과하는 등 다른 신학대학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LA 한인타운 소재 몽궁에서 열린 서울신학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황덕형 총장 초청 만찬

“내적으로도 영성과 감동으로 비상하는 교육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3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해외에서 오고 싶은 대학, 동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주 동문들도 “더 발전하는 대학, 자랑스러운 대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와 교제를 나눴다.

부회장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서는 남가주교역자회장 김성식 목사가 기도했으며, 미성대 전 총장 류종길 목사가 축도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 미국 방문 길에 오른 황덕형 총장은 9일까지 뉴욕과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엘에이 등에서 동문과 후원자 등을 만났다.

담임목사 청빙

THE WAY CHURCH

한길교회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을 드러내며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교역자 - 담임목사

지원자격

1. 10년 이상 목회경험 (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2.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3. PCA교단 멤버이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본교회 지정 양식-교회 홈페이지 <http://churchtheway.com>에서 다운로드)
2. 본인소개, 신앙고백서/ 목회비전
3. 1년 이내 두편의 설교 (동영상 link or mp4)
4.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5. 목회자 2명의 추천서 (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기한 2022년 8월 31일

접수방법 이메일(모든 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waychurch.calling@gmail.com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세기총, 몽골복음주의협 업무협약 “몽골 복음화율 10% 목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 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와 몽골복음주의협회(회장 알탄 처지 목사, 이하 협회)가 선교사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현지에서 체결하고 몽골 기독교 복음화율 10%를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은 3일 오전 몽골복음주의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은 몽골기독교총연합회(법인회장 김동근 장로, 이하 몽기총) 유미정 선교사의 사회와 협회 가나 이사의 통역으로 진행돼 내빈소개, 세기총 공동회장 성두현 목사의 기도에 이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세계선교의 사명 수행과 교회의 책임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로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고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후원과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에 동참하고, 선교사역을 위한 교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현지 방문 등 선교전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몽기총 법인회장 김동근 장로, 몽골복음주의협회 회장 알탄처지 목사,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세기총 공동회장 성두현 목사 ©세기총

락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회장 알탄처지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식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한다. 오늘 감사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몽기총 김동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기

독교 역사 20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20년의 몽골교회가 오늘 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 복음주의협회 산하에는 7백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교회가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근 장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 드린다. 복음주의협회는 올해로 설립 20년 주년이 되었다. 몽골 복음화율은 아직 1%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에 협회는 2010 운동을 전개해 몽골 복음화율 10% 달성을 목표로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가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내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세기총과 함께 협약을 영혼을 살리는 더 큰 일을 하길 바란다. 양 기관이 협약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고 전했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몽골복음주의협회와 한마음으로 선교 협력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별히 업무협약을 위해 몽기총 법인회장 김동근 장로님이 크게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양 기관이 한마음으로 맞고 아름답게 연합사업을 펼쳐가고 양국이 더 복음화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 보다 ‘첫사랑 회복’ 시급”

광복 77주년·건국 74주년 논평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광복 77주년·건국 74주년 논평을 발표하고 “과거에 일제가 하나님을 세우신 이 나라를 집어삼켰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과 인본주의, 배금주의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며 “하나님을 떠난 한국교회에 당장 필요한 것은 ‘연합’과 ‘통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논평에서 “하나님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77년 전 8월 15일에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마침내 74년 전 오늘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셨다”며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자유를 잃고 신음할 때 한국교회를 의의 도구로 들어 쓰셨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 일으킨 3·1 만세운동은 애국 자주 독립운동의 시발점이자 복음의 위대한 발자취가 되었다”고 했다.

한교연은 “코로나19 3년 동안 한국교회는 권력에 의해 예배할 자유를 빼앗긴 채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불의한 권력에 한마음으로 대항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책임이며 복음의 본질에서 떠

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뉘우침과 통렬한 회개로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한국교회에 당장 필요한 것은 ‘연합’과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인권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동성애, 젠더주의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준동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교과주의, 교단 이기주의를 앞세워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다. 허황된 구호와 말뿐인 ‘통합’은 서로에게 깊은 불신과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그 전에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야 적 그리스도 세력과 힘을 합해 싸울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게 될 때, 77년 전 일제의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 사용하실 것”이라며 “광복 77주년과 건국 74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시대적 사명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미국에서 ‘생명상’ 받는다

현지 최대 친생명 단체 ‘라이브액션’ 이 수여... 9월 17일 시상식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회장 이종락 목사가 미국 최대 친생명(Pro-Life) 단체인 라이브액션(Live Action)의 ‘생명상’(Life Awards)을 한국인 최초로 받는다.

라이브액션은 현지 시간 오는 9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나포인트의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하는 제3회 생명상 시상식(Life Awards gala 2022)에서 이 목사에게 이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라이브액션은 “20년 전, 한국에서 신생아들이 공공 장소에 버려지는 위기가 발생했다”며 “이 목사는 2009년 12월 미혼모들이 안전하게(그리고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섰다”고 했다.

이들은 “이후 주사랑공동체로 이름 붙여진 그의 사역은 2,000명에 가까운 아기들을 구조했고, 10,000명에 가까운 미혼모들에게 육아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수

십 명의 장애 아동들에게 보호와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다.

라이브액션은 “이 목사는 단지 ‘아기를 여기로 데려오세요’라는 안내판을 통해 여성들이 낙태나 아기를 버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또한 그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보도록 격려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16명의 자녀들을 가족으로 돌봐왔다”고 했다.

그 16명의 아이들은 모두 장애인들인데, 이 목사가 이들 중 9명을 입양했으며 나머지 7명에게는 법적 후원자가 됐다고 라이브액션은 소개했다.

이들은 “이 목사의 영웅적인 노력과 희생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드롭 박스’(2015)라는 영화에도 영감을 주었다”며 “우리는 이 목사가 태어난 환경이나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신체적·의학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해 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브액션은 매년 한 차례 생명상 시상식을 갖고, 태아 등에 대한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른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일시 2022.9.13 (화) 10:00~15:00 장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일시 2022.9.19 (월) 10:00~15:00 장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림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등록 QR 코드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강사 저서 증정
-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꿈이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한국 방문시 오륜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정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기성 북선위, 교회와 협력해 북한성결교회 재건 나선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주현 목사, 이하 기성) 산하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유병욱 목사, 이하 북선위)는 최근 기성 총회 본부에서 북한성결교회 재건 프로젝트 2차 협약을 맺었다고 한국성결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2차 협약식은 북한에 존재하는 성결교회 82개의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결교회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삼성제일교회(윤성원 목사), 부곡제일교회(유병욱 목사), 인천중앙교회(안덕수 목사), 은샘교회(유대영 목사) 등이 참여해 북선위와 공동협약서를 작성했다. 평촌이레교회도 공동협약 참여 교회

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제일교회는 함경남도 소재 산수정성결교회, 부곡제일교회는 황해남도 소재 연안(연백)성결교회, 인천중앙교회는 소재 평양선교리성결교회, 은샘교회는 강원도 소재 외금강성결교회, 평촌이레교회는 소재 황해남도 연안(연안)성결교회와 결연을 맺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1차 협약식 때는 성락성결교회(지형은 목사)가 평양상수리성결교회, 동수원교회(송태헌 목사)가 함경북도 소재 온성성결교회와 결연을 맺은 바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결연 교회들은 앞으로 북한 성결교회 재건을 위해 ▲중보기도 ▲재건기금 준비 ▲북한선교 사역자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북선위는 결연교회에 결연에 배 및 통일선교를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협약서는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북선위는 서울신대 기독교신학연구소가 지난 2018년 발표한 '북한성결교회 복원사업'을 위한 북한교회 기초자료'에서 1945년 광복 이전 북한에서 성결교회 82곳이 존재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미 대사의 쿼어축제 지지 연설, 외교적 결례”

살롬나비, 8일 논평 통해 비판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지난달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당시 현장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이번 쿼어 행사에 참석한 골드버그 대사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럴싸한 인권논리로 보이거나 실상은 동성애 쿼어행사를 옹호하고 동성애 인권화와 동성혼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섬뜩한 동성애 독재의 논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동성애·동성혼 인권화는 양성체·가정 파괴의 반인권적인 성정치 독재일 뿐, 인류가 추구하는 평등이 아니”라며 “골드버그 대사는 ‘누구든 두고 갈 수 없다’라고 공언하였으나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인가? 이 말이 평등을 뜻한다면 그 의미는 소위 양성체 젠더평등(성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미국이 태평양 전역에서 자유민주의 질서를 지키고 경제적 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협력이 절실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도 골드버그 미국대사가 부임해서 현충원에 참배하기는 커녕 동성애 쿼어행사에 나선다는 것은 한미우호 관계의 역사를 경시하고 미국대사의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으로 자유와 인권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린 순교자들과 선열들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에 대해서 외교적 무례를 범하는 것이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표방하는 행동인가? 대사가 부임 국가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개인 의견을 공적으로 피력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대사로서 적절한 행동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대사의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한 것이라면 이는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불신하게 만들어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만족도 99%’인 채플이 강요?... 기독교대학에 인권위 권고 논란

‘채플 모범’ 사례임에도 “대체과목 개설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교의 채플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잇달아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권고를 받은 대학교의 경우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배려해 예배 형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채플을 마련해 왔음에도, 인권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의도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대체 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받은 지방의 한 종합대학교(왼쪽 하단은 대학교회),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비기독교 학생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플 커리큘럼을 마련했음에도, 인권위는 이 학교에 지난해 광주 B대학교와 같은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지방에 위치한 J종합대학은 지난 7월 21일 인권위로부터 “대체과목 없는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과목 혹은 대체과제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앞서 이 학교에서 비기독교인인 한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했다. 기독교인이 아닌 채플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미수강 시 졸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75%가 비기독교 학생들이 감안하면, 과연 ‘강요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은 해당 채플이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채플 수업이 예배 형식이 아닌 인성교육 및 문화공연 등의 형식으로 구성된 점, 입학 전 채플 이수 안내하는 점(지난해 사건과 일부 차이점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고 사항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학교법인 한동학원)는 “대법원이 기독교 사학의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인권위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위의 위상은 이미 초법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은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침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플은 성품채플(소그룹채플), 문화채플, 지성채플, 소명채플 등 총 4개의 성격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매 학기 자유롭게 이들 중 선택할 수 있다.

성품채플은 직장 등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정직’, ‘배려’ 등 기본적 예절을 함양하도록 과제를 주고받고, ‘바퀴달린 학교’ 프로젝트로 캠프이라는 소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제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문화채플은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해 비신앙인 모두 공감하도록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고, 다양한 게스트가 초청된다.

인권위는 “입학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신학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며,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채플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비기독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 기독교사학 관계자는 “각 교단의 신학대학교들도 상당수가 종합대학교이고 비기독교인들도 입학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권위의 논리대로라면 이 학교들에서도 채플이 금지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결국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호를 존중해 채플의 다변화를 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4개의 채플 중 예배의 형식을 따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문화채플만 한 학기 중 한 차례만 찬양예배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뿐”이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했다.

5일 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J대는 놀라울 정도로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존중하고 채플을 유연화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채플의 모범 사례임에도, 인권위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학기 소명채플은 전체 학생 설문 결과 만족도 99.7%를 기록했으며, 문화채플 99.4%, 지성채플 98%, 가장 낮은 성품채플도 90%에 가까웠다. 관계자는 “학생의

송경호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석사/Post-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메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방송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正品
100% 정품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연명 치료’ 논쟁 불렀던 英 12세 소년, 끝내 사망



© 고편드미 캡처

영국에서 최근 ‘연명 치료’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12세 소년, 아치 베타스비(archie Battersbee)가 지난 6일 오후 왕립런던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이날 “가족의 모든 법적 수단이 다 소진된 후 아치의 생명 유지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아치의 어머니는 병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아들이 사망 소식을 전하며 “너무 슬프다”고 전했다.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치는 정말 아름다운 어린 소년이고 그는 끝까지 싸웠다. 나는 그의 엄마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아치는 지난 4월 7일 사우스엔드에 소재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의 어머니는 아치가 소셜미디어 챌린지에 참여했던 것을 추정하고 있다. 이후 아치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CLO)의 지원을 받은 가족은 아들에게 시간이 더 주어져야 한다고 하며,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

기로 한 의사들의 결정에 반대했다. 이후 아치의 부모는 법적 소송에 돌입했지만, 고등 법원과 대법원 및 항소 법원은 모두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아치를 호스피스로 옮겨달라는 호소도, 그의 상태가 너무 취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한다.

한편,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 기관인 바츠 헬스 NHS 트러스트(Barts Health NHS Trust)의 알리스테어 체서(Alistair Chesser) 최고 의료 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된 후 아치가 토요일 오후 왕립런던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은 병상 곁에 있었다. 매우 힘든 순간에 있을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치의 끔찍한 사고 이후 그를 돌봐준 소아과 집중 치료실의 의료, 간호 및 지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그들은 종종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몇 달 동안 진심으로 고품질의 치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중의 종교 콘텐츠 제한으로 홍콩서 성경 부족”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모습. ©Joseph Chan/ Unsplash.com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종교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가하면서 성경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에서 성서연구기관인 ‘SBF(Studium Biblicum Franciscanum)’을 운영하는 가톨릭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인쇄 회사들이 당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 승인 없이 성경을 인쇄하길 두려워한다”라고 밝혔다. 국제기독교연대(ICC)가 보고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프란치스코회 회원 레이먼드 메리 용 수사를 인용해 “SBF는 가톨릭 중국어성경을 인쇄할 적합한 인쇄소를 찾지 못해 새로운 가톨릭 중국어 성경을 인쇄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회의 가톨릭 중국어 성경 재고는 모두 서점에 팔렸고, 가까운 시일 내 인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이 온라인에 종교콘텐츠를 게시하려면 먼저 등록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이 규정은 종교를 통제하고 당의 정치적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C는 덧붙였다.

ICC는 SBF를 제외한 기독교 단체는

현재까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영국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를 종식시킨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경우 홍콩 사법제도보다는 중국의 결정이 우선”이라며 “이러한 경우 판사는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 시민들은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홍콩 정부가 동맹을 맺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CP는 전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홍콩에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가 종료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공산당은 저장성의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에 대한 탄압을 주재한 사바오룽을 홍콩 마카오 사무국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이래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중국의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오렌지카운티 지역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vkumc.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64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열린다”

세계의 곳곳에서 연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사역을 소개한다.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위치한 바르샤바 한인교회에서 유럽의 한인 선교사들이 150여 명 가량 모여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가졌다.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과 미주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과 한인교회들의 참여로 전체 인원 300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이번으로 18번째 열리고 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가정 중에는 사역의 지침과 탈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미주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드릴까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지역별로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들을 초교파적으로 초청하여 세미나와 잔치를 베푸는 프로그램이다. 그 좋은 일을 하는 미주 교회 연합 봉사단의 중심에 미주 요바리다에 위치한 소중한 교회 담임목사이신 김기동 목사가 계시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고구마 전도로 알려진 전도자이고 그간 많은 강연과 부흥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다. 그분이 미국 동부 볼티모어 지역으로 이주해서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 여러 선교지들을 다니면서 듣는 소식이 장기간 선교사들의 지침과 탈진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소식을 지역 교회 동료 목사들과 나누면서 드디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매년 나라를 바꾸면서 남미의 브라질, 터키의 이스탄불, 아프리카 및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여 그 지역 선교사님들을 비행기 경비, 숙식까지 일체 다 제공하면서 초청하였고 3박 4일간의 강연과 은혜로운 프로그램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아픔을 나누며 기도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회와 나눔을 통해 지역 선교사들의 사명을 재충전하게 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폴란드 바르샤바를 장소로 정하여 150명이 넘는 선교사 가정들을 초청하였고, 그중에서 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과 함께 나온 선교사들도 여러 명 참여하였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현재 1천만 명이상이 되었고 그중 반 수가 폴란드로 몰려들었다. 폴란드 한인 선교사들은 현재 연일 난민들을 돌보며 사역을 펼치고 있다. 엄청난 난민들을 소수의 선교사들이 섬기는 일이 너무도 힘들어 지치고, 포기하고픈 마음마저 들 때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 많은 회복이 일어났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 소중한 교회 봉사팀 16명을 비롯해 미주의 교회 연합으로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석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비행기편, 숙식 등을 섬기기 위해서는 큰 재정이 필요하다. 소중한 교회는 이를 위해 일 년 내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경비를 마련을 위해 온 교우들이 연합하여 재정을 축적한다. 교회는 선교비 충원을 우선으로 하여 교회들 같보리 채플 성전을 빌려 쓰면서 자체 교회 예배당 건축을 포기했다. 담임목사의 선교 전략과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 방침도 훌륭하고, 아울러 그런 목회자의 목회 의지를 지지하며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교회 성도들의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하다. 그렇게 뜨거운 선교사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18년간을 이끌어 낸 소중한 교회와 김기동 목사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 연합 성도들께 심심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는 독일의 소설가요 시인입니다. 그는 단편집, 시집, 우화집, 여행기, 평론, 수상(隨想), 그리고 편지를 모아서 엮은 서한집 등 다양한 글을 남겼습니다. 헤세의 주요 작품은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싯타르타> 등이 있고, 헤세는 <우리알 유희>로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877년 7월 2일 독일 남부 시인의 고장 슈바벤 주 뷔르템베르크의 소도시 칼프에서 기독교 선교사이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와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는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인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외가도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889년까지 실업 학교에 다녔으며, 1890년 신학교 시험 준비를 위해 괴팅겐의 라틴어 학교에 다녔고, 주(州)에서 주관하는 기숙 신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는 신학교를 거쳐 목사가 되는 것이 엘리트의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헤세는 신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주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노이로제를 심하게 앓았으며 그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이로제 회복 후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학당하고 서점 견습 점원이 됩니다. 그 후 한동안 아버지 일을 돕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시계공장에서 3년간 일하면서 문학 수업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반나치 운동을 하면서 독일 당국의 눈 밖에 나게 되고 문단과 출판계로부터도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헤르만 헤세가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유입니다. 헤세의 이력 중에 특이한 것은 그가 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40세 되던 1917년에 정신과 의사의 권유로 붓을 들기 시작해 독학으로 300여 점의 수채화를 남긴 화가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그는 계속 성장을 꾀합니다. 아버지 죽음, 아내의 정신병, 자신의 병 등 위기에 처하자 정신분석학계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이전과는 다른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기실현을 위한 그의 변신은 1962년 8월 9일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헤세의 고뇌는 자전적 성장소설에 잘 나타납니다. 그의 첫 자전적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에서 한스라는 소년을 통해서 자신의 고뇌와 갈등을 토해냅니다. 한스와 헤세의 삶을 비교하면 한스가 젊은 나이에 죽은 것만 빼면 두 사람의 삶은 거의 일치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한스 기벤트라는 독일 시골에 사는 수재 소년입니다. 한스의 아버지 요제프는 중개업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신흥 중산층입니다. 신흥 중산층은 상류층으로부터는 경멸을, 하류층으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 다. 한스는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 다.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아들의 성공을 통해 신분상승을 바랍니다.

한스는 주(州)에서 시행하는 기숙신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합니다! 당시 독일에서 신분상승의 지름길 이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나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스는 118명의 응시생 중에서 전체 2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슈바벤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수재들만 응시하는 시험에서 대단한 성적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한스는 성공을 위해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만 신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점점 행복을 잃어 갑니다. 한편 그곳에서 친구 하일러를 만납니다. 그는 시에 재능이 있었고, 반항기가 가득해 학교 규칙을 어기는 문제아였습니다.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던 한스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하일러를 멀리하려 노력했지만 하일러와의 우정과 하일러의 매력 때문에 하일러를 떨쳐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스는 하일러의 뼈뺀 성격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하일러의 우

울함까지 전염되어 고생도 했지만 하일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를 닮아 갔었습니다.

둘은 신학교 안에서 과감한 일탈을 즐겼습니다. 이는 신학교에서는 꿈꾸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한스가 꿈꾸던 젊은이의 삶이었습니다. 한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한스를 야기던 교장 선생님과 개인 면담을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한스가 공부하기를 권하지만 그는 이미 공부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일러는 거듭되는 반항 끝에 퇴학을 당했고 이어서 한스도 학교를 떠났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한스가 공장에 취직하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 진학도 못하고 공장에 들어갔던 친구 아우구스트가 도와 주어서 겨우 수습공이 됩니다. 그러나 한스는 몸도 약하고 공장일에 소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가 된 한스는 '신학교 대장장이'라 놀림을 받습니다.

무료하게 지내던 한스는 어느 가을날 엠마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한스는 엠마에게 급격히 빠져들고, 엠마는 한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한스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데, 엠마는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그 상처로 힘들어 하던 한스는 어느 일요일 공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취한 채 강가를 건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살인지 사고인지 모를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에서 무미건조한 자신의 성장기의 삶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합니다. 첫째, 행복을 찾아 헤매는 불행이 보입니다. 한스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한스의 친구 하일러는 행복을 갈망하지만 욕심과 무지로 불행의 길을 계속 선택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행복을 찾는 열심보다 행복을 찾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교육의 허상을 봅니다. 교육제도의 수레바퀴에서 신음하는 한스는 당시 독일 교육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육이 행복으로 인도한다고 믿었던 그 시대의 믿음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헤세는 이런 교육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셋째 행복은 스스로가 찾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멋진 친구 하일러도 사랑했던 엠마도 한스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내려야 합니다. 한스의 최대 실수는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기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S 인증. 미래는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S 인증.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BHE, ATS, ACSS 인증.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포도원의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

누가복음 13:1-9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8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오나 하시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쩔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들으지 못하여 질려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요(사5:1-7)”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포도원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기대하셔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최선의 관리를 했음에도 들 포도가 맺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6같이 결단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배은망덕함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회개한 일이 없고 거듭난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인격

과 성품을 닦아가는 성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죄악으로 치닫는 일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촉구했음에도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짓밟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로 누가복음 13:1-9말씀은 갈릴리에서 짐승을 잡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사람 두세 사람을 칼로 쳐죽이고 제물로 차려진 짐승의 피에다가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 총독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귀책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 일이 원통하고 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빌라도가 동족을 죽였다고 분개할 처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보살피시고 인도하심 받아 살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롬2:5)”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1-7말씀과 같이 이 교회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정통한 말씀으로 가꾸어 오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극상품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들 포도만 맺어드리

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허물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경고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은 예수님을 바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늘 소망을 가꾸는 곳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과원지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열매맺는 생활을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심에도 열매없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 내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제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전도함으로 그들이 생명의 길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흐뭇한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과로 인하여 흐뭇함을 얻으시면 기대가 새로워지고 관심과 대접도 확실히 달라져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8-19에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해 보이시며 믿음의 회개와 영적 소망을 위한 중생(重生)의 진리를 애타게 선포하며 믿음만한 증거로 이적기사를 통한 표적(表蹟)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 협박하고 강요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할 것이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죽게 할 것이기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며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주와 멸망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13에는 “멀리서 앞서기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앞서기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6월에 열매가 맺히고 7월 하순부터 익어 먹을 수 있는데 앞만 무성만 무화과가 열매 없다고 죽게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욕구적 조건을 화려하게 살면서 영적 소망이 없고 또 영적 성과도 없게 되면 저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교훈일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나 예루살렘 망대에 치어죽은 18명에게도 죽기 전에 필경 여러 차례 회개하도록 여러 모양의 기회를 주셨으나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 그렇게 죽게 하신 것이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가 계속 열매(생명구원)를 맺지 않음으로 주께서 뽑아버리라고 어찌 망만 버리겠냐고 질책하실 때 포도원지기인 목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하는 말이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포도원의 열매없는 무화과는 죽은 목숨이었지만 자비로운 목자의 중보간청(중보간청) 덕분에 가까스로 1년 더 생명연장의 혜택을 입게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과 영적상태가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심사숙고해 보시고 서둘러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생명열매 맺어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멧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강준민 칼럼

작은 것 속에 담긴 행복의 발견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며칠 동안 문득 행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행복한지 여쭙어보면 대답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어릴 적엔 무척 가난했습니다. 저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난 중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가난 중에도 놀이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 풍요한 나라가 되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열은 심각하고 언어는 거칠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집 떠난 행복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

어야 합니다. 짧은 글 속에 행복의 비결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 몇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조절해서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 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한 때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이 선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원망하는 민족은 결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을 아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감사하는 법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제임스 킵슨은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 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에일 대학교의 로리 산토스(Laurie Santos) 교수는 행복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산토스 교수는 행복의 비결 중의 하나로 감사사를 듭니다. 그는 하루에 3가지 감사 노트를 쓸 것을 추천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중에 하루에 3가지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3가지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의 행복도는 감사 노트를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게 되면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게 되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 남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셋째, 행복은 감탄에 있습니다. 경탄에 있습니다. 경탄이란 경이로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허셀은 "나는 하나님께 결코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이로움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경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글을 읽고도 경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에 감격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이슬 속에서 창조주를 생각하며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꽃 한 송이를 관찰하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작은 것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감탄을 잘하는 길은 관찰을 잘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는 멈춰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세를 낮출 때 관찰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더 이상 멈춰 서서 감탄하지 못하고, 경이로움에 황홀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의 눈은 감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걸림돌은 익숙함에 있습니다. 익숙하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을 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감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은 섬김에 있습니다. 행복은 짐작할수록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것이 행복의 신비입니다. 행복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한 건 어렵습니다. 행복이란 파랑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 주는 일은 작은 것 같지만 행복을 맛보는 비밀입니다. 기회가 되면 설거지가 제공해주는 행복에 대해 글을 써 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행복을 지켜봅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행복을 지켜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 속에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은 작은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4-②

4차 산업 혁명 시대 4가지 이점

이에 참관인은 360도 8K VR 카메라가 여러 시점에서 보고 싶은 수술 부위와 과정을 보여 주어 몰입도가 높았다고 밝혔으며, 3D XR 이머시브 XR immersive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음성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점도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이들이 모여 자세히 참관하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감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리가 멀어도 얼마든지 AR과 XR 증강현실 도구로, 의료 수술과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너 때는 말이야〉, 저자 정동훈은 통상적인 치료와 더불어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로 인해 재활 치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Shin, et al., 2016). 국립재활원 재활의학과는 뇌졸중 환자에게 모션 인식 스마트 장갑을 끼운 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물건 집거나

종이 넘기기, 생선 굽기 등 다양한 행동을 연습할 경우에 기능은 물론 삶의 질까지도 더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가상현실 치료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 통증 완화를 위한 재활 치료 뿐만 아니라 공포증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고소공포증, 거미 공포증이 있으면, 가상현실을 통해 조금씩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3) 셋째,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 시대에 건축설계에도 기술 혁신이 일어납니다.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 이재원 저자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부분에 기술 혁신으로 건축설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벤틀리 시스템스가 개발한 '싱크로 XR(SYNCHRO XR)'을 홀로렌즈2 위에서 실행하면 건축설계를 4D 차원에서 가능하게 합니다. 즉 건물을 설계할 때 도면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좌우는 물론 건물 내부까지 살펴 보면서 진행되는 것이죠."

예전과 달리, 이제는 홀로렌즈를 통해, 건축설계 시, 4D 차원에서 도면 위아래, 좌우, 심지어 내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넷째,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 시대에 심리적 외로움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에서 한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초 심리치료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양로원과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의 기운을 북돋고, 혈압, 맥박을 안정시켜 줍니다. 소아 정신질환으로 6개월 정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자녀가 이 로봇과 소통하면서 말문을 열기도 하였는데요.

'디지털 LSD(환각제)'라고 불리던 디지털 중독과 미디어 중독으로 치부될 메타버스는 코로나 이후 단절된 관계로부터 오는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MZ

세대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 혁명 속 메타버스 시대에 MZ 세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영적인 차원에서 메타버스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은 더욱 온라인 접속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미디어 중독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으로 어떤 면이 좋고, 나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자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진유철 칼럼

중보기도의 능력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프러시아 태생으로 오늘날의 독일인데 영국에서 살았던 조지물러는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랑아로 동네 강패처럼 지내다가 지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 이전 명이 넘는 전쟁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고, 여러 성경학교와 예배당을 세웠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

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현재의 7천만 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칠백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드는 사역을 하며, 단 한 번의 도움 요청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이룬 단 하나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게 된 물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며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말렉과 전투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때 지도자 모세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진두지휘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꼭대기로 올라 갔습니다. 실제로 전투를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6.25전쟁 때

공산주의의 기습침략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 될 정도로 연약했던 국군처럼, 노예에서 금방 해방된 오히려 무기도 전술도 싸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패하는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서있는 팔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그 팔을 받쳐주므로 해가 지도록 끝까지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철, 치, 끝'(절제하고 치열하게 끝까지)하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서 승리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다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아

니라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마귀는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번 8차 도미니카 단기선교를 비롯한 여러 선교팀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로 훈련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도록 때 예배 때마다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토요일과 주일을 비롯하여 틈틈이 중보기도실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번 주간은 Back to School 특사로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가 더욱 쌓여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민중기 칼럼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33명의 애국자들은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습니다. 이어서 파고다(탑골) 공원에 모인 서울 시민들 앞에서 성명 미상의 사람이 이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선언문의 내용대로 자유와 평화와 독립을 위한 무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언은 힘이 있습니다. 선언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선언은 간절한 기원을 담은 기도입니다. 복음 운동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세례 요한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눅 11:1)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삼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즉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등반복적으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아울러 안식년과 회년의 해방을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debtors)를 탕감하듯이 우리의 빚

(debt)을 탕감하시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행 중의 벗"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녁을 먹지 못하고 불시에 방문한 친구를 위하여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구하면, 친구가 된 이유로 주지 않아도 그 답대한 간청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첫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기도는 중단없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구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찾는 기도입니다. 찾는 기도는 숨겨진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숨어계신 분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잠긴 문을 배경으

로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거절"이나 "거부"(refusal)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훈련이 마쳐지면 결국 우리에게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의지와 육체를 연단시킴으로 우리를 일꾼으로 훈련하십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며,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와 은사를 주시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착잡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갑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천하의 장사 철갑이로 돌아와 있었다.

"조선의 모든 사람이 나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고 있지 뭐가? 하하하!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치광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해 보세. 전국 곳곳에 보낼 전도 자료들과 외국에서 반입할 자료가 있으면 내게 말하게. 내가 책임지겠네."

지금까지 그는 우리의 복음 전도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미친 체하고 다녔던 것이다. 그렇다면 똥을 먹은 것도 모두 연기였

단 말인가? 철갑이는 그날 일을 떠올리면 구역질이 난다며 자기 앞에서 똥 얘기는 (절대) 꺼내지도 말라고 손을 저었다.

철갑이가 그날 똥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

맨 정신에 찌지도 않고 맨발로 쏘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철갑이가 역겨움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어느 날 새벽 강가에 나가 이를 닦았는데, 때마침 그 모습을 주재원이 본 것이다.

"아니 미친놈이 말쑥하게 이를 닦아? 너 정말 미친 것 맞아?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친 체하고 다니는 거지? 솔직하게 말

해!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감방에 보내고 말테다!"

그때 간신히 위기 상황을 넘겼지만, 철갑이는 자기가 미쳤다는 것을 그 주재원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준 똥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나만 보면 슬금슬금 피해 다니네. 예전의 강철 주먹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운 몸일세. 그러니 중요한 자료를 운반할 일이 있으면 내게 맡기게. 아무도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걸세." (계속)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 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어렸을 때 죽음을 알았고, 늙었을 때 (탄)생을 알았다”

이어령 선생이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선생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말
‘눈물 한 방울’
더블클릭도 힘겨워
손글씨로 써내려간 단상
죽음 앞둔 단상들과
생각 변화 엿볼 수 있어

올해 2월 영면한 이어령 선생이 생의 마지막 3년간 자유롭게 떠오르는 단상들을 모은 책이 <눈물 한 방울>이다. ‘더블클릭’조차 힘겨워진 선생이 직접 손글씨로 쓴 글들이다. ‘마지막 육필 원고’라 할 수 있다.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2022’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마치 ‘이어령 선생이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이랬겠다’ 싶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짧은 글들과 직접 그린 소품 같은 그림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주제와 집필 의도가 치밀하고 뚜렷한 선생의 기존 여러 책들과 달리 그때 그때 떠오른 ‘잡문’ 같은 글이어서 짧지만 신선하고, 오히려 깊이가 느껴진다. 파스칼의 <팡세>,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도 떠오른다. 이어령 선생의 수많은 작품들이 있고 영면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가장 인상 깊은 책 중 하나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쓴 글 147편 중 110편을 골라 실었다고 한다. ‘눈물 한 방울’이 들어간 담백한 시들도 있고, 병마로 인한 아픔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써내려간 기록도 있다. 죽음을 앞둔 선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렵פות이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의미만을 찾아다녔다. 아

무 의미도 없는 의미의 바탕을 보지 못했다. /겨우겨우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의미 없는 생명의 바탕을 보게 된다(2019. 11. 6).”

“나는 어렸을 때 죽음을 알았고/ 나는 늙었을 때 (탄)생을 알았다./ 거꾸로 산 것이다(2019. 12. 8).”

“죽음은 열매처럼 익어간다. 처음엔 암처럼 파랗게 붙어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둥글게 자라 껍질의 빛이 달라진다. ... 죽음은 가을이 되고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서 노랗게 혹은 빨갛게 익어간다. 말랑말랑해진 죽음에는 단맛이 들고 빛이 달라진다(2020. 6. 15).”

“아직 내 죽음은 차가운 저 창살 너머에 있다. 나를 노려보지만 송곳니를 내보이고 짓으려 하지만 저만큼의 거리가 있다. / 내가 그 우리를 들어가거나 창살이 부러지면 호랑이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죽음의 조련사는 없다. / 죽음은 길들일 수 없는 야수.”

“내가 죽는 날은 맑게 개인 날이었으면 좋겠다. / 하늘은 파랗고 땅은 황토색 그리고 산들은 바다처럼/ 출렁거렸으면 좋겠다. /그늘 하나 없는 대낮이었으면 좋겠다(2020. 9. 12).”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 있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멈추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죽음인 게다(2021. 5. 어버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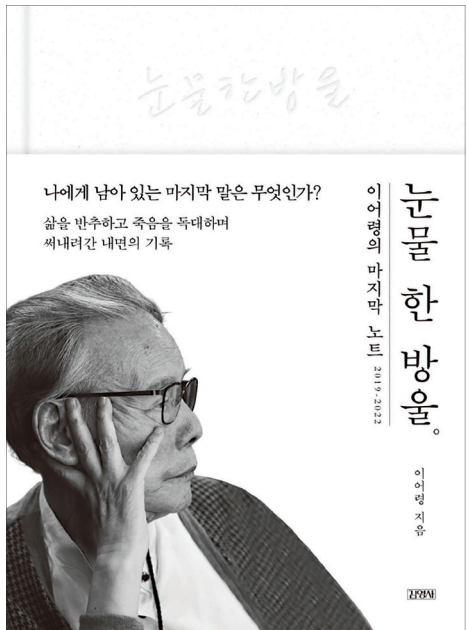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마지막 남은 말, 사랑이라든가 무슨 별 이름이든가 혹은 고향 이름이든가? 나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몸이 바로 흙으로 빚어졌기에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2022. 1. 23. 새벽, 마지막 글).”

지난 6월 28일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부인 강영숙 영인문학관 관장은 “남편은 40년 전부터 컴퓨터를 썼기 때문에, 육필 원고가 많지 않다”며 “육필 원고가 들어가 있어 정말 감동했다”고 말했다.

육필 원고는 사적 기록 용도였으나, 지난 1월 초 이어령 선생이 김영사 대표에게 “원한다면 책을 만들어 보라. 그림도 재미난 것들 몇 개를 써 보라”고 하면서 공개할 수 있었다. 제목은 이미 ‘눈물 한 방울’로 정해 놓았고, 선생과의 편집과 디자인 검토를 거쳐 책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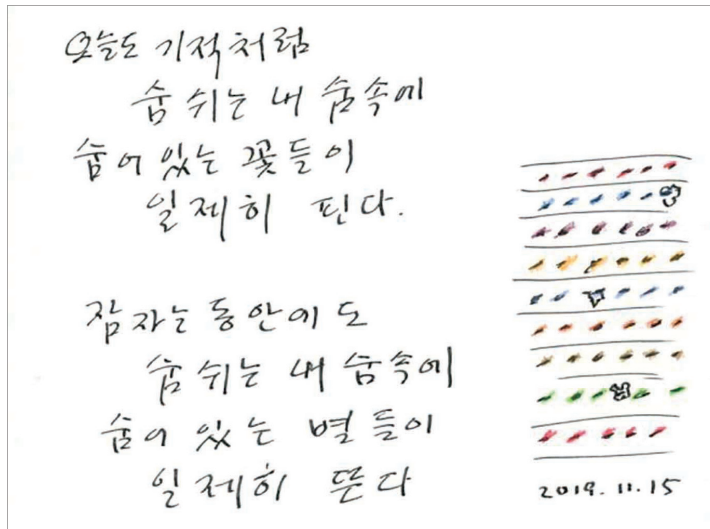
이어령 선생의 유족은 육필 원고 중 이번 책에 실리지 않은 37편의 글과 다른 노트에 남긴 단상까지 묶어 별도의 책으로 펴낼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2월 1주기에는 영인문학관 내 선생의 서재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눈물 한 방울
이어령
김영사 | 200쪽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2022



책 속 육필 원고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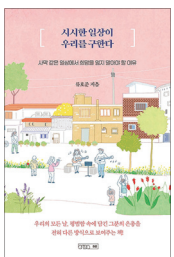


지난 6월 28일 <눈물 한 방울> 기자간담회 모습. 오른쪽부터 고세규 김영사 대표, 이어령 선생 아내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 ©김영사

[8월, 작가들의 말말말②]

◆류호준 -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 인



생을 지으시고 지금껏 인도하셨 습니다. 나의 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의도적 창조물'(intentional creation)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는 오직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의 나 이길 바라시며, 주위의 다섯 달란트 사람과 같이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삶을 예술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비록 한 달란트 사람이지만,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결국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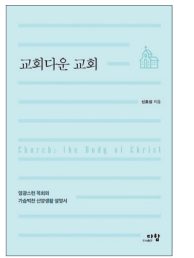
◆신호섭 - 교회다운 교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하

시는 역사요 구속역사는 하나님 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역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History)가 없는 역사(history)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구속의 역사이며,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교회를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며 하나님 나라는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넓고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일부분입니다.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40yr	\$24	\$30	\$36	\$46	\$67	\$86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inexcel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식 변화유연한 변형기 일체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밥, 오방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한산: 용의 출현> (2)

영화 <한산:용의 출현>, 복음과 민족의 바람직한 관계

복음, 구한말 암울 현실 울타리 넘어 천국시민 약속 비루했던 과거 넘어 승리 도취 민족의식 갖는 대신 고난 가득한 민족적 현실 떠올리는 게 올바른 접근 민족 발전에 만족하고 안주, 복음에 대한 관심 식어

◆약자의 민족의식: 군사적으로 낙후된 민족의 서글픈 자기이해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의 군사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16세기 중반~20세기 중반) 초반에 발발한 전쟁이다. 이는 곧 임진왜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슬한 외침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갖은 고초와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을 재현한 영화 <한산>.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 등장하는 귀선(거북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16세기 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17세기 초), 병인양요와 신미양요(19세기 중반), 동학농민전쟁(19세기 말), 그리고 한국전쟁(20세기 중반)까지, 임진왜란 이후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처참한 인명피해와 국력 쇠퇴, 그리고 외세에 대한 의존 강화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물론 두 차례 호란 이후 청국에 불모로 잡혀간 쓰라린 기억이 있었던 효종은 조선의 군사력 회복에 많은 힘을 들여 잠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그가 이른 나이에 사망함에 따라 그 노력이 후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을 잠깐이나마 자력으로 막아냈다는 점에서 승리한 전투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시 상대에 비해 우리 편이 당한 피해가 훨씬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종합해 보자면 임진왜란 이후 한국전쟁까지 우리 민족의 전쟁사 속에는 전술적 승리의 순간이 드문드문 존재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패배하거나 실패를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민족에게는 중간중간 드물게나마 경험한 국지적인 승리의 기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마저 없었으면 우리 민족 스스로에 대한 군사적 자긍심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이나 권율 같은 명장들, 광재우 등 크고 작은 공을 세운 의병들, 흥병도와 김좌진 등 독립군을 이끌었던 맹장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여러 전쟁 영웅들은 우리 역사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인물들이다. 국가의 시스템이 도저히 강대한 외적을 물리치기 힘들도록 망가진 상태에서, 온갖 난관을 헤치고 전술적으로나마 승리를 거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과는 경이로울 지경이다. 그는 자신이 지휘한 해전 대부분을 명백한 승리로 이끌었으며, 패전이라고

할 만한 전투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8승 5무). 이것이 21세기 현재까지도 <한산: 용의 출현>처럼 그의 전공과 삶을 담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수시로 제작되는 이유이다.

길고 긴 군사 약소국의 역사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전공을 거두었기에, 우리는 거듭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경탄과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시대 영국이나 근현대 미국의 명장들처럼 막대한 군사적 자원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더 크게 증폭된다.

◆복음과 민족의식: 복음 전파의 지향점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민족의식

이런 전쟁사적 배경을 지닌 우리의 민족의식은 영국, 미국, 일본 등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오늘날 몇몇 지역 패권국들에게서 확인되는 승리의 자긍심에 도취된 민족주의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우리의 민족의식은 약소국의 설움으로 얼룩진 서글픈 민족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양측 중 어느 편이 낫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약소국의 민족의식, 서글픈 민족의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할 것이다. 자기 민족이 지닌 강대함과 그로부터 말미암는 자긍심에 기대는 심리는 마음의 우상으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스스로의 역사를 되짚어볼 때, 도무지 자긍심 어린 민족주의를 일으키기 어려운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의 부강함이라는 것이 잠시 손에 붙들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대를 저버린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뼈저리게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약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민족과 국가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친다.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절대적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특정 민족의 울타리에 갇힐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민족의 울타리에 갇힌 사고와 삶의 방식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잠정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량>이나 <한산: 용의 출현> 같은 작품에서 기독교인이 구해야 할 것은 민족감정이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꽤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기를 거쳐왔다는 사실에 대한 냉정하고도 서글픈 자기이해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평한 자기이해는 우리 민족과 그 일원인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런 민족적 굴레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는 복음의 위대함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개신교 선교는 바로 이런 정신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들이 도무지 나라와 민족의 현실로부터 희망이나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 암울한 울타리를 뛰어넘어, 천국의 시민권을 약속하는 복음에 최고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고 설득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해 중 하나가 복음이 우리 민족의 흥과 부강함을 위해 주어졌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복음과 민족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생각이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민족감정과 민족의식은 복음의 전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을 뿐 목적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교회 개척과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네비우스 선교전략도 처음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민족의식을 이용하지만, 중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민족의 틀을 벗어나 인류 전체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런 맥락에서 <한산: 용의 출현>은 두 가지 시각으로 읽혀질 수 있다.

비루했던 과거를 묻어두고 승리와 부강함에 도취된 민족의식을 향유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 되지 않는 소중한 승리로 커다란 위안을 삼아야 할만큼 고난스러웠던 우리의 민족적 현실을 떠올릴 것인가. 전자보다는 후자가 이 영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및 해석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우리 나라가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의 말석에 한 발 걸치게 되면서, 약자의 서글픈 민족의식을 애써 망각하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방위산업 부문에서 약진을 거두면서 상처받은 군사적 자긍심을 극대화하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한산: 용의 출현>은 공교롭게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기독교 신앙인에게 민족의식이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배경적 조건일 뿐, 자체적인 향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이 강성해진 데 만족하고 의존하는 정서가 일반화된 요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 교수)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남가주지역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WE BRIDGE CONFERENCE

주제: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

@ 토렌스 조은교회 | SEPT. 26th-28th



We Bridge는?

-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로 잇는 공간
-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함께 돕는 모임
- 연합과 동역을 통해 세상을 살릴 교회의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

참가 자격 (남가주지역 교회 대상)

- 예배인원 성인 30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회자 및 사모, 연령 59세 미만
- 개척 혹은 설립한지 10년 미만의 교회
- 자체 건물이 없는 렌트 교회로 지금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의 교회
- 현재 외부 재정 후원이 없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컨퍼런스 참가교회에 한하여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불씩 3년간 재정 지원
- 컨퍼런스 후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지원

숙소:

SONESTA ES SUITES TORRANCE REDONDO BEACH

설교자:

권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김경진목사, 김우준목사, 오명찬목사, 고승희목사

특강 강사:

이상명 총장, 이상훈 총장, 김섭리 목사, 정한나 사모, 최은희 강사, 존치 목사, 송정명 목사

기획 / 예배 찬양:

ONEHEART WORSHIP



SCAN ME!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BRIDGE
CHURCH TO CHURCH

213.739.0403

webridgeinfo@gmail.com

기획: Oneheart Ministry | 주관: 기독교일보, ING, CBS
후원: We Bridge 후원 교회, 한국 해민병원, PRO-Z USA, DB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등록 마감
8월 25일

컨퍼런스 등록교회 중 50개 교회 선정 후 개별 통보